

Bar-Retained/Supported Overdenture



박찬진 (강릉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전임강사)

1994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
1997년 서울대학교병원 보철과 전공의 수료
2001년 서울대학교병원 보철과 전임의
2003년 서울대학교 치의학박사 학위(치과보철학 전공)
2002년-현재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전임강사

Overdenture 수복시 다른 연결 장치에 비해 Bar 연결장치가 가지는 적응증으로는 치주적으로 약화되어 동요도가 심하여 바에 의한 일차적 부목 효과가 요구되는 지대치, 짧은 dowel 만을 수용하게 될 치근, 특히 지대치의 분포, 의치 지지부위의 성질, 또는 점막-지지 의치 하방의 예상되는 흡수 때문에 의치의 운동이 정상보다 큰 경우 등이 있습니다. 또한 bar의 설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역학적 안정성과 마모저항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수복의 장점에는 치아나 임플란트에 leverage 감소, 의치에 안정성 및 부가적 유지 부여, 고정성에 비해 심미성 획득 용이, 지대치의 동요도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대치 선정과 장치허용공간의 확보 등의 진단과정, 주의깊은 치료실 및 기공과정, 환자의 세심한 관리능력의 배양등을 요구합니다.

따라서 소수의 잔존치나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무치악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bar-retained/supported overdenture의 기본개념, 장점 및 단점, 기공과정, 치료실조작과정, 유지 및 관리등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합니다.